

삶을 위로하는 다정함의 깊이

## 팜페라 테너 임형주

무대는 광장보다 좁지만 무대 위에 서면 광장보다  
넓은 세상이 보인다. 빛이 닿지 않는 그늘에도 소리는 퍼지고,  
다정함의 온도는 숫자로 표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꿔놓는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소외된 마음을 보살피며 다정한 세상을 꿈꾸는  
팜페라계의 리더 임형주를 만났다.







- 1 국내 팝페라의 초석을 다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이미지상을 수상했다.
- 2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르페움 극장에서 독창회를 열었다.
- 3 2023년에는 몽골을 공식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알현하는 영광을 누렸다.
- 4 2003년 헌정사상 역대 최연소로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선창했다.
- 5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UN 평화 메달을 수상했다.

팝페라라는 단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 1985년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키메라를 소개하며 ‘한국에서 온 팝페라의 여왕’이라 표현했고, 뉴욕 타임스에서도 사용하면서 대중화됐다. 한국이 팝페라의 종주국인 셈이다. 활동 기간이 짧았던 키메라의 뒤를 이은 건 임형주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각종 가창 대회 대상을 휩쓸며 삼성영상사업단에 스카우트되었고, 1998년 독집 앨범을 발매하며 데뷔했다. 그때 나이가 열두 살이었다. 지난 1월 열린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서 임형주는 국내 팝페라의 초석을 다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머릿돌상을 수상했다. 수상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인생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머릿돌상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요. 팝페라 종주국에서 팝페라를 세계에 알린 인물로 인정해주신 거니까요. 올해는 제가 데뷔한 지 26년째 되는 해예요. 그동안 독집 앨범을 20장 발표했고, 데뷔 앨범을 제외한 모든 앨범이 클래식 앨범 주간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했어요.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상조차 못한 시간과 기록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노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노래가 저를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이를테면 운명 같은 거요.”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서 임형주는 잊지 못할 순간으로 세 가지 장면을 꼽았다. 2003년 헌정사상 역대 최연소(17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선창한 것, 같은 해 세계 남성 성악가 중 최연소로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리사이틀을 한 것, 그리고 데뷔 때부터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UN 평화 메달을 수상한 것까지. 그뿐만 아니라 임형주는 세계 음악인에게 꿈의 무대로 여겨지는 카네기 홀의 모든 홀(아이작 스탠 오디토리움, 잔켈 홀, 웨일 리사이틀 홀)에서 솔로 공연을 했고,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의 로마 시립 예술대학 성악과 종신 명예교수로 임용(2016년 종신 석좌교수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에는 영국 왕립예술학회 종신 석학 회원에 선정됐다. 임형주가 세운 모든 기록에는 최초이자 최연소라는 수식이 붙는다. 아역으로 데뷔한 배우는 중년이 되어서도 어린 이미지가 남아 있는 반면, 임형주는 걸어온 발자취 때문인지 어디를 가도 원로 대접을 받는다. 서너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후배들은 그를 선배가 아닌 선생님이라 부르고, 방송국은 패티김, 조영남, 양희은, 김동규와 함께 대기실을 배치한다.

### 팝페라 황제의 인생 두 번째 챕터

“저는 늘 미래를 살았습니다. 스케줄이 빡빡했고, 정해진 일을 무사히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보다 완벽한 공연, 보다 감동을 주는 공연을 위해 축각을 곤두세우곤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른 나이에



데뷔해 유명인 임형주로 사느라 돌보지 못했던 자연인 임형주를 위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깨달았거든요.”

팬데믹을 통해 임형주는 인생을 조금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뻘뻘했던 국내의 스케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활발하게 음원을 발표하는 대중 가수와 달리 오케스트라가 모일 수 없으니 리코딩 작업도 할 수 없었다. 집은 감옥 같았고, 한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낯짜와 시간 관념이 사라질 즈음 ‘지금 이 휴식이 신의 뜻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제야 특유의 긍정적 마인드가 살아났고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2021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가톨릭평화방송 FM 라디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를 진행했고, 예원학교 후배이자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 오케스트라 전속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조수아의 데뷔 앨범을 디렉팅했으며, <팬텀싱어 3>에 출연한 강동훈과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2022 산레모 신인가요제’에서 우승한 팝페라 가수 박종수 등 후배들의 멘토링을 해주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는 온실 속 잡초처럼 자랐어요. 어느 모임이든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편이죠. 새롭지 않은 걸 못 견디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정해진 법과 규칙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클래식보다 팝페라를 선택했을 거예요.”

임형주의 새로운 경험은 모두 음악적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발표한 아홉 번째 정규 앨범이자 스무 번째 독집 앨범인 <라이프 온 에어Life On Air>는 노래와 코멘트가 공존하는 라디오 콘셉트로 제작했다.

### 겸손한 자신감을 갖추길 소망하며

“2023년이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또 다른 25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이에요. 올해부터는 솔로 음악가로서의 음반 활동이나 단독 콘서트를 최대한 줄이고, 자선 콘서트 아닌 상업 공연은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대신 제 글로벌 감각과 노하우를 후배와 후학에게 전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술 행정직을 맡아 한국 문화 예술계와 음악계의 제도적인 시스템 기반 조성에 일조하고 싶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은퇴를 결정한 건 아니다. 외려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농익어가고 있다. 다만 오래전부터 데뷔가 빨랐기에 은퇴도 빠를 거라고 생각해왔고, 떠밀려 은퇴를 하기보다 기왕이

- 6 2023년 발매한 스무 번째 독집 앨범 <라이프 온 에어>는 라디오 콘셉트로 제작했다.
- 7 2015년 11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로마 시립 예술대학 성악과 종신 명예교수로 임용됐다.
- 8 2010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세 번째 독창회.
- 9 재능 기부로 협연한 2014년 아프리카 지라니 합창단과 드림키즈 청소년 오케스트라 특별 공연.
- 10 2011년 발매한 일곱 번째 정규 앨범 <잃어버린 시간 속으로>의 재킷 사진.



6



7



8





#### 한국이미지상이란?

지난 1월 1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제20회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이미지상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이 한 해 동안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 사회,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현대차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디딤돌상, 스페인의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징검다리상, 팝페라의 선구자 임형주가 머릿돌상, 프랑스 소리꾼 마포 로르가 꽃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컨트리뷰팅 에디터 이미지 | 사진 제공 디자인콜, CICI

면 기량도 명성도 정점에 있을 때 스스로 걸어 내려오고 싶었기에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임형주는 한국이미지상을 팝페라의 선구자로 25년 동안 잡음 없이 열심히 활동한 것을 칭찬하며 수여한 공로상처럼 느낀다. 임형주는 2025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건립 중인 팝페라하우스 초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오페라하우스가 있지만, 팝페라하우스가 세워지는 건 세계 최초다. 임형주는 이곳을 팝페라계 후배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판으로 만들고 싶다. 신인 오디션이나 국제 콩쿠르를 개최하고, 가능성 있는 인재를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소속사에서 해왔던 프로듀서와 멘토의 역할이 확장되는 셈이다. 또 임형주는 현재 로마 시립 예술대학에 명예교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국내 대학에서는 제안이 와도 해외 활동 때문에 고사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수락할 생각이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친절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길 반복해요. 상처를 받는 일도 흔하죠. 저는 세상이 공평해지거나 친절해지길 바라지는 않아요. 그걸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다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좌절했을 때, 상처받을 때, 미움받을 때, 거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다정한 사회요. 그동안 예술가로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며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세상이 다정해지길 바라며 활동했고,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제 목표는 그 안에서 변주될 거예요.”

2024년은 임형주에게 변화의 해가 될 것이다. 활동도 역할도 달라지더라도 리더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임형주는 자신이 겸손한 자신감을 갖춘 리더로 남길 바란다. 겸손함과 자신감은 반대편에 머무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팝과 오페라가 더해져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듯 두 가지가 더해지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발휘될 거라 믿으면서. ㉞

나는 겸손한 자신감을 갖춘 리더가 되고 싶다.